

# KWDI

## 해외통신

2020년 7월 1차 (2020.7.1 ~ 7.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영국 UNITED KINGDOM



#### 영국, 코로나19로 올해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공개 유예 결정에 시민사회 반발 야기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남성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성별임금격차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2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정책을 코로나19를 이유로 당분간 유예하기로 해 코로나19 이후 영국에서 성별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영국 고등교육 관련 통계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HESA(the 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가 6월 1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초봉을 기준으로 대졸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10%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유무와 상관없이 대학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남녀 임금 격차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2018년 대졸자 기준으로 남녀 평균 연봉은 2만4천~2만7천 파운드(한화 기준 3천700만~4천100만 원)이었다.
- 하지만 해당 연봉 구간별로 따져보면 고소득 구간에 포함된 남성이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취업 15개월 안에 연봉 3만 파운드(4천600만 원) 이상 버는 여성 대졸자는 2018년 전체 대졸자의 18%인데 반해 남성 비율은 28%로 여성보다 10% 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연봉 3만9천 파운드(6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구간에 포함된 남성은 2018년 전체 대졸자의 6%인데 반해 여성 비율은 3%로 남성보다 두 배 낮았다.
-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는 영국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공개정책도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멈춰 섰다.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직원 250명 이상 고용한 회사를 대상으로 남녀 임금 격차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법을 실시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했을 경우 정부가 법에 따른 제재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나 올해는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 리즈 트러스 여성평등부 장관은 3월 24일 언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로 전례 없던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한다. 올해 성별임금격차 공개는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자료

- The Guardian(2020.06.18.), “Gender pay gap begins for students straight after university - report”,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jun/18/gender-pay-gap-begins-students-straight-after-university-graduate-data-report-uk> (접속일: 2020.06.09.)
- HESA(2020.06.18.), “Higher Education Graduate Outcomes Statistics: UK, 2017/18 - Salary and location of leavers in employment”, <https://www.hesa.ac.uk/news/18-06-2020/sb257-higher-education-graduate-outcomes-statistics/salary> (접속일: 2020.06.09.)
- Gov.UK (2020.03.24.), “Employers do not have to report gender pay gaps”, <https://www.gov.uk/government/news/employers-do-not-have-to-report-gender-pay-gaps> (접속일: 2020.06.09.)
- The Guardian(2020.05.29.), “COVID-19 crisis could set women back decades, experts fea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29/covid-19-crisis-could-set-women-back-decades-experts-fear> (접속일: 2020.06.09.)

-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양성평등 활동가인 샬럿 우드워스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할 기업의 법적 요구 조건을 코로나19를 이유로 완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남녀평등 수준이 수십 년 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했다. 영국 국가세입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와 USL 교육연구소(UCL Institute of Education)가 지난 5월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하는 엄마가 일하는 아빠보다 직장을 잃거나 퇴사할 가능성이 47%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서비스업과 소매업으로, 두 업종의 대부분 노동자가 여성이다. 해당 연구는 자녀가 있는 영국 3천500 가구를 인터뷰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여성의 평균 자녀 돌봄 노동 시간도 남성보다 2.3 시간 더 많았다. 인터뷰에 참가한 여성들은 하루 평균 10.3시간 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는 반면 남성들은 평균 8시간을 보냈다. 또한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도 남성보다 1.7시간 더 많았다.

- Institute for Fiscal Studies(2020.05.27.), “Parents, especially mothers, paying heavy price for lockdown”, <https://www.ifs.org.uk/publications/14861> (접속일: 2020.06.09.)

## 스페인 SPAIN



### 스페인, 코로나19 이동제한에 따른 여성의 일-가정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시민단체 중심 온라인 청원 시작

곽 서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3월 14일 스페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동제한령 시행을 공표한 이후, 스페인 국민은 몇 달간 약국이나 마트와 같이 꼭 필요한 볼일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 채 생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여성들은 경제활동과 더불어, 늘어난 가사·돌봄 부담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지속 되었다.
-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6월 초, 2015년부터 스페인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 및 일-가정양립 문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인 Yo No Renuncio( I do not resign, 역: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에서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다. 이동제한령으로 가중된 여성들의 일-가정 부담 해소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으로, 7월 초 기준 해당 청원에 20여만 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 본 단체는 이번 청원 배경으로 이동제한령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스페인 정부가 가족 관련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약 4백만 이상의 가정에서 일-가정양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청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의무 때문에 기존에 하던 본인의 일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는 여성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전국에 이동제한령이 실시된 지 2주 정도 되었을 시점인 3월 중순에 Yo No Renuncio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600여 명의 여성 중 응답자의 70% 가량이 집 안에서 재택근무에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고, 80% 가량이 재택근무와 육아 또는 가사일을 병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자료

- Change.org(2020), “Exigimos medidas urgentes para conciliar y no renunciar #EstoNoEsConciliar,” [https://www.change.org/p/pedro-s%C3%A1nchez-exigimos-medidas-urgentes-para-conciliar-y-no-renunciar-durante-esta-crisis-estonoconciliar?source\\_location=discover\\_feed](https://www.change.org/p/pedro-s%C3%A1nchez-exigimos-medidas-urgentes-para-conciliar-y-no-renunciar-durante-esta-crisis-estonoconciliar?source_location=discover_feed) (접속일: 2020.07.09.)

- The Guardian(2020.05.29.), “We are losers in this crisis”: research finds lockdowns reinforcing gender inequality,”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0/may/29/we-are-losers-in-this-crisis-research-finds-lockdowns-reinforcing-gender-inequality> (접속일: 2020.07.09.)

- Yo No Renuncio 단체 설립자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기도 한 로라 바에나(Laura Baena)는 한 언론사를 통해 “코로나19,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실시된 이동제한령으로 우리는 곧 각자의 집안에 갇히게 됐다”면서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과 일·가정 양립에 있어 진일보하려던 와중에 답보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청원에서는 자택근무 보장 법제화,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불가피하게 부모 또는 양육자 모두가 출근해야 하는 가정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자 고용 비용 환급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 지난 4월,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제한령 기간 중 사람들이 육아, 일, 집안일이라는 일상을 어떻게 유지해나가고 있는지를 유머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작된 시트콤 “Diarios de la cuarentena (Quarantine Diaries, 역: 격리생활 다이어리)”가 방영되기도 했다. 15명의 스페인 유명 배우들이 실제 본인 집에서 카메라로 스스로 촬영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제작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본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육아일 분담에 관해 이야기하고, 아이들 온라인 강의를 챙기고 매일 해결할 집안일 등을 해내는 등 스트레스가 쌓이는 하루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는 실질적인 일상을 담아내 화제가 된 바 있다.
- 스페인 정부는 지난 6월 21일, 3달여간 지속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발표했으나,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제한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일·가정 양립 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이번 청원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만 하다.

- Reuters(2020.04.10.), “Quarantine Diaries’ sitcom makes fun of Spanish women’s coronavirus struggles,”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spain-sitcom-trfn/quarantine-diaries-sitcom-makes-fun-of-spanish-womens-coronavirus-struggles-idUSKCN21R33P> (접속일: 2020.07.09)
- University of Valencia (2020.03.04.), “Las mujeres con menores que teletrabajan soportan la mayor parte del estrés del confinamiento,” <https://www.uv.es/uvweb/socials/es/novedades/mujeres-menores-teletrabajan-soportan-mayor-parte-del-estres-del-confinamiento-1285923210882/Novetat.html?id=1286127953796> (접속일: 2020.07.09)

## 독일 GERMANY



### 독일, 코로나 위기 속 아동보너스 지급 및 종일학교·어린이집 확대 등 가족·돌봄 지원 강화

채혜원 독일통신원

-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독일 정부의 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부터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족 강화’, ‘보육서비스 확대’, ‘비영리단체(공익단체) 지원’에 집중된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는 경제회복, 일자리 확보 등 독일 정부의 광범위한 경제 부양책 마련 과정에서 가족과 아이돌봄이 지원의 핵심이며 가족 복지와 남녀평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 ▶ 아동보너스(Kinderbonus) 지급

- 독일 정부는 2020년 9월과 10월, ‘아동수당’(Kindergeld)을 받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너스(Kinderbonus)’를 300유로(한화 약 41만 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부모 수입에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아동보너스 역시 소득에 상관없이 선지급된다. 다만 연 93,000유로(한화 약 1억 2,749만 원)의 소득이 있는 고소득층 가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금 정산할 때 관련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7.01), “Fragen und Antworten zum Kinderbonus,” <https://www.bmfsfj.de/bmfsfj/themen/corona-pandemie/finanzielle-unterstuetzung/faq-kinderbonus> (접속일: 2020.07.14.)

- 아동보너스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아동에게 9월에 200유로, 10월에 100유로 총 300유로가 지급된다. 아동보너스를 받을 아동 수는 약 1천 8백만 명이며, 연방 정부는 아동보너스 지급을 위해 43억 유로(한화 약 5조 8,950억 원) 예산을 책정했다. 한번 지급되는 아동보너스와 달리 매달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 월 204유로(약 26만9천 원), 셋째 아이 월 210유로(약 27만7천 원), 넷째 아이부터는 월 235유로(약 31만4천 원)이다.
- 한편 아동보너스 지급과 함께 연방 정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2020년과 2021년에 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

▶ **종일학교(Ganztagsschulen)/호르트(Hort) 지원 확대**

-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종일 학교(Ganztagsschulen)’와 ‘호르트(Hort)’ 기관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모의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이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미 연방정부는 2025년까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초등학생의 돌봄 교육을 위해 특별기금 20억 유로(한화 약 2조 7,419억 원)를 편성한 바 있지만, 2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0년과 2021년 지원 비용을 받은 주정부는 프로그램 후반 즈음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무엇보다 학교의 디지털 학습을 위한 지원이 이어진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학교는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 외에 집에서 가능한 이러닝(E-Learning)이 함께 이뤄지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 및 학교 돌봄서비스 확대에 대한 추가 지원**

- 연방정부는 보육 시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좋은 아동 보육 시설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까지 55억 유로(한화 약 7조 2300억 원) 예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10억 유로(한화 약 1조 3,709억 원)를 추가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추가 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이뤄지는 보육시설 확장과 신축, 위생상황 개선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9만 명의 아동이 어린이집 등을 통해 돌봄 자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비영리단체 및 기관 지원**

- 비영리 단체 및 기관도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코로나 이후 큰 위기에 닥친 사회적 기업, 유스호스텔, 청소년 교육 시설 외에도 비영리 아동 및 청소년 숙박 시설과 국제 청소년 교환학생 운영 기관 등이 포함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기관 지원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특별 재정 지원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특히 독일 국책은행인 독일재건은행(KfW,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에서 대출금으로 10억 유로를 제공한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은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대출 최대 금액은 80만 유로(약 10억 9,676만 원)다. 그동안 비영리기관은 자금 및 수입 부족으로 대출 심사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번 지원으로 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Ministerin Giffey: Corona-Konjunkturpaket ist ein großer familienpolitischer Erfolg und richtig starker Impuls”,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ministerin-giffey-corona-konjunkturpaket-ist-ein-grosser-familienpolitischer-erfolg-und-richtig-starker-impuls/156208> (접속일: 2020.07.13.)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06.04.), “Corona-Konjunkturpaket enthält überlebenswichtige Kredit- und Überbrückungsprogramme für gemeinnützige Organisationen”,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corona-konjunkturpaket-enthaelt-ueberlebenswichtige-kredit-und-ueberbrueckungsprogramme-fuer-gemeinnuetzige-organisationen/156250> (접속일: 2020.07.13.)

-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여러 기관을 통해 만들어진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구조는 독일 사회 및 교육 환경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코로나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영향이 이어질 수 있도록 결정한 조치라고 발표했다.